

지역 매아리

김제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안정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추진

김제시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유형 및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5월 초 수요대상자 현지답사를 추진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1억 2천 여 만원을 투입하여 집수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내에서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실내외 안전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가구의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미디어센터 30일 개관식

완주미디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 30일 공식 개관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만나온 완주미디어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마을티브이, 공동체 라디오, 팟캐스트 등 군민들의 다양한 미디어활동이 기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완주미디어센터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고 마을시민의 성장과 공동체간 소통을 돕고자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미디어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창작지원, 공동체상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말 문화축제 내달 4일 개최

완주에서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25일 완주군은 제54회 완주군민주간 및 어린이날을 맞아 제4회 완주말문화축제를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과 완주군이 주관하고 완주군승마협회가 주최하는 완주말문화축제는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축제에서는 승마체험, 말 품종전시, 말 먹이주기 체험, 마상무예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난 24일 페타이어폐기물처리장 반대(소양면대책위원회위원장 사영철)위원회는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페타이어폐기물처리장 허가 반대

완주군청 "입지조건, 장비 등을 고려해 진행"
소양면대책위 "만경강 최상류인 소양천 오염"

완주군 소양면 곰터로에 드러설 예정인 페타이어폐기물 처리장의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페타이어폐기물처리장 반대(소양면대책위원회위원장 사영철)위원회는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양천 맑은 물은 완주·전주를 거쳐 만경강을 이루고 새만금으로 이어진다"면서 "페타이어폐기물처리장이 드러서면 이로 인해 만경강의 최상류인 소양천이 오염된다"며 "폐기물처리업 허

가를 절대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소양면 신촌리일대는 웅치전투전적지 성역화사업 예정지이자 문화재보존지구 검토대상지역이다.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 했지만 완주군민은 한 위대한 승전이며 이곳은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성지이다"면서 "폐기물처리장은 절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사업 추진자 1명의 사익을 위해 3개마을 150여명의 생존권과 6천여 소양면민에

기본적 생활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언자에게는 노후대책이지만 소양면민에게는 생명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완주군청이 소극적 법규해석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에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법 제5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린 법률위반행위"라며 페타이어폐기물처리 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법, 대표자 결격사유, 입지조건, 장비 등을 고려해 허가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소년들 대상 체험프로그램 큰 호응

김제 청소년수련관 · 만경 · 금산 문화의집, 참가비 무료

김제 청소년수련관 및 만경·금산 문화의집에서 올해 3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단소와 소금, 피아노, 오카리나, 다같이 sing along, 방승댄스 등 음악활동을 비롯하여 농구, 나비골프 등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수채화캘리그래피, 플라워아트, 각종 공예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 나의 적성과 소질을 알아볼 수 있는 진로코칭도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공예 재료도 무료로 제공되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화합으로 인한 긴장감을 풀고 자신에게 맞는 체험활동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며 무엇보다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다.

프로그램 운영은 방과 후 시간 또는 토요일에 1~2시간 실시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언제든지 각 청소년 수련시설(김제 540-4591, 만경 540-4152, 금산 540-3949)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의 게임,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공공 청



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래와의 만남·소통의 공간으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일본 관광여행사 2개 업체

일본 관광객 유치 MOU 체결

시, 지평선축제 설명회 개최...Sanshin Travel Service 등 참석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5일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Sanshin Travel Service 등 2개 업체와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는 일본 관광객 모객과 유치를 위한 지원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관광 상품 개발 및 일본 관광객 모객 및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지사장 정진수)를 찾아 면담을 실시하고 Sanshin Travel Service의 34개 업체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여행업계는 현지 설명회 개최 요청 등 김제지평선축제에 대

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앞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업체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김제지평선축제의 다양한 체험과 KTX 탑승, 금산사, 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상품 개발로 전년도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진출 구사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글로벌축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육성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5일 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Sanshin Travel Service 등 2개 업체와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중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 준비체계 돌입

행사 대행사 우선협상대상 선정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류정기)는 국내 최초 국제 쌀포럼 개최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쌀산업 관련 교두보를 선점하고 국내외에서 지평선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의 행사 대행사로 '엠커뮤니케이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는 대행사 선정을 위해 지난 4월초에 나라장터에 공고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위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22일 정성평가를 통해 국제행사를

다수 수행한 경험과 행사목적, 방향,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했다.

우선 협상대상 업체인 엠커뮤니케이션은 '쌀의 진화, 미래와 세계를 잇다'를 주제를 정하고 시장 다변화에 맞춰 쌀의 가치를 향상하고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행사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4월안에 계약을 실시하고 김제시 8개소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쌀포럼 추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은 지평선축제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개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